

# 광주시, 노후 경유차 2025년까지 모두 폐차

###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청사진 제시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제한

광주시가 기후 위기에 맞서 추진하는 '인공지능(AI)-그린 뉴딜'을 기반으로 녹색도시 실현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2025년까지 노후 경유차를 모두 폐차하고,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도 제한한다.

광주시는 19일 오후 시청 시민 홀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광주형 AI-그린 뉴딜 2차 시민 보고회를 열었다.

지난달 21일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데 이어 3대 전략, 8대 핵심과제로 계획을 구체화했다.

시민 모두가 녹색에너지를 생산·이용하는 녹색 전환 도시, 누구나 기후 재원으로 부터 안전한 기후 안심 도시, 미래형 환경 융합 산업 메카 녹색 산업 도시가 3대 지향점이다.

광주시는 시민 에너지 발전소, 빛고를 시민 햇빛 발전소를 운영하고 공동주택, 공장, 산업단지, 순환도로 등 도시 전역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4만9000여대로 추정되는 노후 경유차를 2025년까지 모두 폐차하고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을 제한한다.

시는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도로 정비, 거점 개편 등으로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현재 2%에서 2025년 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기후 안심 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4곳 조성, 생활 폐기물 100% 자원화, 광주천



19일 오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공동체 기후위기 비상사태 공동선포 및 광주형 AI-그린뉴딜 시민 보고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5개 자치구 관계자들이 기후위기 극복과 그린뉴딜 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녹색 산업 도시를 위한 과제로는 청정 대기-공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 300개 환경 기업 유치를 통한 첨단 녹색산업 메카 조성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 5개 자치구, 시의회, 시교육청, 광주상의, 광주 기후 위기 비상 행동 등은 '광주 공동체' 이름으로 기후 위기 비상사

태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광주공동체는 "기후 위기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동시에 경제 위기를 가져온 코로나19보다 훨씬 파괴적"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에너지 자립, 탄소 중립 도시 광주로의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 전국 확대된다

### 시·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주민총회 모델 발굴 협약

광주 곳곳 삶의 현장인 동, 마을에서 열리고 있는 주민총회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19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시교육청,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주민총회 모델 발굴 협약을 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광주시에 제안해 교육청과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광주에서는 19개 동 주민자치 활동이 지난해 18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서구 금호 1동은 4개 학교별 총회를 시행해 대상을 받았다.

광주형 주민총회는 동, 마을에서 다양한 계층 주민이 학생·청소년(학교), 아파트 공동체, 마을 공동체 등을 통해 발굴된

안건을 주민총회에 상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23일, 30일 서구 금호 1동과 풍암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학교, 학교·청소년 총회, 아파트 총회 등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또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게 자치분권위원회의 계획이다.

광주기도 내년에는 더 많은 동을 참여시켜 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 국제농업박람회 5회 연속 국제행사 승인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가치를 선보이며 국내 최대 농업분야 종합박람회 자리를 잡은 '2021국제농업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됐다.

전남도는 19일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심사위의 심의에서 2021국제농업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았으며, 이는 첫 국제행사로 개최된 2012년 이후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5번째"고 밝혔다.

2021년 박람회는 그동안 4회 연속 국고 지원을 받은 국제행사로 일몰제로 인해 국비 지원 중단 위기도 겪었다. 전남도는 이

에 따라 '2021 국제농업박람회 기본계획'을 기초로 박람회 목적과 국제행사라는 의미에 부합되도록 준비해 지난해 12월 일본 연산신청서를 제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재부를 방문해 농업의 미래가치와 농업·농촌의 활로 모색을 위한 행사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국제행사 승인으로 탄력을 받은 2021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미래를 꿈꾸는 스마트 농업'이라는 주제로 내년 10월 21일부터 11일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 AI기업들 "투자 의지 보고 광주 진출 결심"

### 광주시와 간담회서 밝혀...인재양성·인프라 조성 높게 평가

"인프라 조성은 기본이고, 인재양성과 창업지원까지, 광주시의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강력한 투자 의지를 보고 광주 진출을 결심했습니다"

AI대표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광주시에 새롭게 등지를 뜬 인공지능 기업들은 광주 진출 배경으로 한결같이 광주시의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을 꼽았다.

19일 광주테크노파크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에서 열린 '광주법인 설립 및 사무실 개소 인공지능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광주진출 배경을 소개하고 애로 사항을 공유하며 미래 발전 방향 등을 모색했다.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인코어드피엔피, ㈜티맥스인공지능개발센터, 솔트룩스

광주인공지능센터, ㈜텔스타-홈텔, ㈜나무인텔리전스, ㈜엑센트리뷰터스, ㈜씨아이비메딕, ㈜알파도, ㈜바이스, ㈜웨이브에이아이 총 10개 기업이 참여했다.

기업들은 이날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가 인공지능 산업 관련 인프라 조성, 인재양성 및 창업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다. 기업들은 특히 광주시가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 관련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들어 등지를 틀었다고 입을 모았다.

솔트룩스 광주인공지능센터 김정태 센터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불모지에 가까웠던 광주시가 AI집적단지 조성, 데이터센터 구축, AI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집중하면서 잠재적 성장 동력 및 무한한

경제적 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면서 "지역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과 상생으로 신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광주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바이스 장민 대표이사는 "인공지능 관련 오픈소스 사업 추진을 고민하던 중 1월 광주시의 인공지능 중심도시 비전선 포식에 참석했는데 광주가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실리온 벨리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즉시 법인이전을 실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AI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과 건의도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또 다른 참석자는 인공지능 광주 만들기 파이프 프로젝트, 실무형 인재풀 운영 등을 제안했다.

유치기업들은 또 ▲주거지 추천 및 제공 ▲인공지능 인력확보 ▲지역인재 채용

에 대한 지원 ▲초기 사업에 대한 기획 및 지원 ▲전문상담 컨설팅 기관 설치 ▲관련기관 데이터 수집 및 지원협력 ▲제품 개발 관련 실험 장소 등 인프라 지원 및 경쟁사 벤치마킹 ▲분야별 소모임 형성 및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광주시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간담회였다"면서 "특히 지역인재 및 전문가 육성,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지원, AI스타트업 컨설팅 지원, 유치기업 간 협력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실질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SNS 및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가겠다"면서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를 선택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병목도로 확장

### 전당~전남대병원...내년 12월 완공

광주시가 삼승 정제 구간인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도로(광산길)를 확장하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당과 전남대병원을 잇는 광산길(길이 215m)의 도로 폭 12m를 25m로 확장하는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위한 의견

청구 공고를 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토지 소유주와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다.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 내년 5월 공사에 들어가 12월 완공·개통 예정이다. 시는 2005년 전당 건설과 함께 도로 확장을 추진했으나, 예산 확보 문제, 전당 측과의 이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728명 채용

코로나19로 지역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전남도가 방역 관련 준비를 확보해 700명이 넘는 방역관리요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9일 "국민들의 여행 불안심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의 사업비 239억원 가운데 54억원을

확보해 728명의 방역관리요원을 도내 관광지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전국 1071개소의 관광지에 239억원을 들여 방역관리요원 323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9월부터 12월 까지 주요 관광지 269개소에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해 관광객 안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신세계안과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트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